

# ‘제주한라산신제단법당’과 제주불교

한금순\*

## • 목 차 •

- I. 머리말
- II. 한라산신제의 역사와 역할
- III. ‘제주한라산신제단법당’ 활동과 제주불교
- IV. 맺음말

---

\* 문학박사, 제주대학교 사학과 외래교수.

© 『大覺思想』 제29집 (2018년 6월), pp.271-299.

## 한글요약

근대 제주불교의 관음사는 관할 사찰 소림사에 ‘제주한라산신제단법당’이라는 현판을 달아놓고 제주도민을 위로하는 활동을 거행하였다. 이는 종교적인 범위의 활동이기도 했으나 제주사회 현안에도 참여하여 활동하고자 하였던 제주불교의 활동 양상 중의 하나로 생각되었다. 이에 한라산신제를 거행하는 제주불교의 활동이 제주불교의 제주사회 참여활동의 일환임을 여타 근대 제주불교 활동 속에서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제주도 관음사는 조선시대 국가 의례였으나 1908년 일제가 폐지한 이후 방치되고 있는 한라산신제를 복원하여 제주도민을 위로하고자 하였다. 소림사를 1933년부터 한라산신제를 봉행하는 ‘제주한라산신제단법당’으로 활용하였다. 특별히 제주한라산신제단법당이라는 현판을 내걸어 사찰의 삼성각의 기능을 제주도의 한라산신제단의 역할로 의도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파악하였다. 왜냐하면 근대 제주불교는 꾸준히 종교 활동의 범위를 넘어 제주사회의 현안에 적극 참여하는 활동을 보이기 때문에 이 또한 제주사회를 이해한 활동 중 하나라 보았다.

제주불교의 제주사회 참여활동은 1918년 제주 범정사항일운동으로 그 위세를 떨치기도 하였다. 제주불교협회는 제주도 사회단체들과 함께 제주기근구제회 활동에 같이 참여하고 관음사의 안봉려관은 집행위원으로 참여한다. 또한 만주의 동포가 중국으로부터 학대를 받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도의 사회단체들이 만든 재만동포옹호동맹 활동에는 관음사 주지 안도월이 선전부 구성원으로 참여 활동하기도 한다. 제주불교협회 포교당은 제주사람들의 제주사회 참여활동 장소로 제공되기도 하였다. 재만동포옹호동맹의 사무소로 제공되거나 제주청년회, 제주여자청년회의 회의 장소로도 제공된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러나는 제주불교의 사회참여 활동을 보는데, 소림사의 ‘제주한라산신제단법당’이라는 현판은 제주불교가 종교 활동을 제주사회 현안에 참여하는 활동으로 부각시키려 의도했던 활동이라 보았다.

## 주제어

제주불교, 관음사, 한라산신제, 소림사, 산천단, 제주불교 사회참여활동, 한라산신제단법당, 이은상, 안봉려관, 삼성각

## I. 머리말

1933년 제주도 관음사는 관할 사찰이었던 소림사를 ‘제주한라산신제단법당’으로 역할을 주고 한라산신제를 담당하는 사찰로 활용하였다. 이는 제주 사회에서의 한라산신제의 의미를 파악한 관음사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제주사회 참여활동으로 생각된다. 관음사와는 별도의 위치에 있던 독립 사찰 소림사를 삼성각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여 ‘제주한라산신제단법당’이라고 쓴 현판을 별도로 달아 놓기도 하였다. 이는 관음사로 대표되는 근대 제주불교가 제주사회에 적극 참여하여 활동하려 했던 모습의 일환이라 생각하였다. 이에 ‘제주한라산신제단법당’ 활동을 하는 제주불교의 의도는 근대 제주불교의 제주사회 참여 활동 의도의 하나로 보았다.

제주도의 한라산신제는 조선시대 국가의례로 거행되었고 산천단은 바로 이 한라산신제를 거행하던 장소이다. 소림사는 산천단에 위치하고 있었고 근대 제주불교는 산천단의 제주도에서의 역사적 역할을 이해하고 있으면서 1908년 일제가 폐지한 이후 방치되고 있던 한라산신제를 부활시켰다. 제주도민을 위로하는 한라산신제를 불교 활동의 영역으로 포함시켜 이행했던 제주불교의 제주사회 참여활동의 한 사례로 파악된다.

근대 제주불교는 신도들의 신앙활동 영역 외에도 제주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참여하였던 이력이 있다. 대표적으로는 1918년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의 주도라 할 수 있다. 제주도민들은 어업 생산물에 대한 일본의 착취, 토지 구획 및 각종 행정 등에서의 일제의 수탈을 인지하고 있었고 법정사 승려들은 일본인을 제주도에서 몰아내고 국권을 회복하겠다는 뜻을 표방하여 지역 주민 700여명을 이끌어 내었다.

이외에도 대기근으로 인한 어려움을 구제하고자 하는 전국적인 활동에 동참한 제주기근구제회 활동 및 만주 동포를 돕기 위한 재만동포옹호동맹 등의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찾을 수 있다. 한라산신제단법당의 설치도 관음사가 신도들의 신앙활동의 영역을 뛰어넘어 제주사회의 다양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려는 의도가 포함된 활동이었다고 보인다.

본고는 ‘제주한라산신제단법당’ 활동을 통해 근대 제주불교의 제주사회 참여활동을 살피고자 한다.

## II. 한라산신제의 역사와 역할

조선시대 제주도의 한라산신제는 국가 의례였다. 산신제의 기원은 자연물을 신앙대상으로 하는 고대 신앙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 산신은 우리의 토속신으로 국가에서는 명산을 지정하여 호국신으로 의례를 행하였다. 우리나라 산신제의 연원은 삼국시대 이전으로 올라갈 수 있지만 한라산신제의 기록은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1. 상례로 행하는 의례

조선조에 한라산신제는 국가 주도의 상례적인 의례였다. 태종은 한라산제를 사전(祀典)에 실어 봄, 가을에 제사지내도록 하였다.

「예조에서 제주 석전제와 한라산제 의식을 올린다」

예조에서 제주의 문선왕(文宣王) 석전제(釋奠祭) 의식과 한라산제(漢拏山祭) 의식을 올렸다. 석전제 의식은 각도 계수관의 예(例)에 의하고 한라산제는 나주 금성산의 예에 의하여 여러 사전(祀典)에 실고 봄 가을에 제사지내게 하였다.<sup>1)</sup>

세종은 한라산신제를 국고의 미곡으로 제사 지내는 것을 항구히 법식으로 정하도록 하고 일 년에 4회 제사하도록 하고 있다.

1)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4월 11일 신묘 4번째 기사.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예조에서 전국의 영험한 곳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국가에서 행하는 치제의 예에 따를 것을 건의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원컨대, 이제부터 산천의 기암과 용혈(龍穴)과 사사(寺社) 등 영험한 곳에 제실(祭室)과 위판(位版)을 설치하고, 매양 4중월(仲月)(주석: 2월, 5월, 8월, 11월.)의 길일에 사자(使者)를 보내어 예를 행하게 하소서.’ 하니, …(중략)… 모두 국가에서 행하는 약(岳)·독(瀆)·산(山)·천(川)의 제품(祭品)의 예(例)에 따라 국고의 미곡으로 치제하게 하고, 제사 뒤에 감사가 본조에 이문(移文)하는 것으로 궁식(恆式)을 삼게 하소서. …(중략)… 제주의 한라산, …(중략)…가 그것입니다.”하니, 그대로 따랐다.<sup>2)</sup>

한라산제는 국가 주도의 상례적인 의례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 2. 예조의 역할

한라산제는 예조가 마련하는 의식이었다. 예조에서 향과 축문, 교서 등과 함께 예식을 주관하도록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정조는 향과 축문을 마련해주고 의식에 관한 것도 예조가 준비하게 했다. 또한 제주 어사 심낙수에게 향과 축문을 주어 한라산 산신제를 지내게 하고 예조가 의식을 마련하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

「비변사에서 제주 어사가 가지고 갈 사목을 올린다」

1. 한라산에 재계(齋戒)하고 제사를 설행하는 것에 관한 의주(儀註)를 예조로 하여금 마련하여 거행하게 한다.<sup>3)</sup>

2) 『세종실록』 46권, 세종 11년 11월 11일 계축 2번째 기사.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3) 『정조실록』 11권, 정조 5년 6월 17일 무자 3번째 기사.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제주 어사 심낙수에게 한라산 산신에게 제사를 지내게 하다」  
 상이 제주 어사 심낙수에게 향과 축문을 주어 한라산 산신에 제사를 지내게 하고 예조에 명하여 그 의식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예조가 아뢰기를, “<오례의(五禮儀)>에 있는 주현명산대천의(州縣名山大川儀) 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하니, 윤허하였다.<sup>4)</sup>

순조 대에도 한라산제를 예조가 마련하였다. 향과 축문, 나라의 경사를 알리는 교서인 반교문 등을 보내어 거행하게 했다.

「예조가 한라산제·풍운뇌우제의 향·축문을 바다에 잃은 일을 아뢰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제주의 한라산제(漢拏山祭)와 풍운뇌우제(風雲雷雨祭)에 쓸 향과 축문 및 토역(討逆)한 반교문(頒敎文: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백성에게 그 사실을 널리 알리는 교서)을 같은 배로 들여보냈었는데, ‘사서도 앞 바다에서 갑자기 풍랑을 만나 그대로 배가 뒤집혀 가라앉아서 향·축문과 교문이 아울러 물에 흘러가 없어졌다.’고 하니, 대단히 놀랍고 송구합니다. 그런데 막중한 사전(祀典)을 그냥 빠뜨릴 수 없으므로 형편이 장차 다시 길일을 택하여 물려서 행해야 될 것이니, 향과 축문을 해사(該司)로 하여금 다시 곧바로 마련하여 급속히 내려 보내되 이 뜻을 축문 가운데에 적당한 문구를 만들어 첨입하도록 하소서. 그리고 향·축문이 물에 흘러가 없어졌으므로 인하여 이 사전을 시기가 지나서 설행했던 일은 전에 없었던 바입니다. 해당 도신(道臣)을 경계하게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종종추고(從重推考)하고, 도회관인 강진 현감도 청컨대 해부(該府)로 하여금 나문(拿問)하여 처리하도록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sup>5)</sup>

4) 『정조실록』 38권, 정조 17년 11월 24일 계축 3번째 기사.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5) 『순조실록』 3권, 순조 1년 8월 1일 을사 2번째 기사.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한라산제에 쓰라고 내려 보낸 향과 축문 등이 풍랑으로 배가 뒤집히며 없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시 길일을 택하여 행하도록 하고 있다. 향과 축문이 다시 마련되어 내려 보내졌다.

### 3. 위민을 위한 의례

한라산제의 성격을 살펴볼 수 있는 기록도 있다. 상례적인 시기가 아닌 때에도 백성을 달래야 하는 일이 생겼을 때에는 별도로 한라산신제를 행할 것을 명하기도 하였다. 제주도에서 모반사건이 일어나 제주민을 회유하기 위해 김상헌을 안무어사로 파견하였다. 이때 선조는 김상헌에게 한라산신에 대한 제례 수행을 명하였다.

1601년 7월 제주에서 발생했던 길운절 소덕유 모반사건에 대한 자세한 진상을 조사하고, 제주민을 회유하기 위한 안무어사로 제주에 입도했다. 선조(宣祖)는 제주민을 위로하기 위한 교서를 반포하고 나아가 한라산 산신에 대한 제례를 수행하라고 명을 내렸다. 따라서 그는 제주에 들어오자마자 절차에 따라 엄격히 교서를 반포하여 제주민을 위로하고, 모반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단행하여 처리한 후 장계를 올렸다. 끝이어 한라산 등산을 하여 정상에서 산신제를 지낸다.<sup>6)</sup>

김상헌은 백록담 북쪽 모퉁이 단에서 한라산신제를 지냈다. 제주관관을 비롯한 대정, 정의 등 삼읍의 관리와 존자암의 승려 등이 동행하였다. 국가적 의례인 만큼 제주도의 중요 관리가 모두 참여하였다.

**백록담의 북쪽 모퉁이에 단이 있으니** 제주목에서 늘 기우제를 지내던 곳이다. 밝을 무렵에 행사를 하였다.(집사는 제주관관 이종일, 대정현감 이신, 정의현감 이연경, 제주훈도 진위이다.)

6) 김상헌, 홍기표 역, 『남사록』상, 제주: 제주문화원, 2008, pp.13-14.

동행한 승려 몇 사람이[경산에서 죄를 짓고 귀양을 온 자들이다] 나에게 말하기를, “먼저 번에 이 산에 오른 사람들은 반드시 여러 날 존자 암에서 재계(齋戒)하면서 머물고, 맑은 날을 기다려 올라와서 바라보아도 오히려 구름과 소나기만 내려 번번이 지장이 생겨 그 뜻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올라와 아무런 거칠 것 없이 시원하게 바라볼 수 있으니 이번 행차는 참으로 다행입니다.” 하였다.<sup>7)</sup>

현종은 제주의 기근으로 세 고을에서 백성들이 많이 죽는 일이 발생하자 이를 위로하기 위해 선유어사를 보내게 되었는데 이때에도 한라산에 제사할 것을 명하였다.

「부교리 이하를 제주에 보내 선유하다」

부교리 이하를 제주로 보내어 선유하게 하였다. 조정에서 제주 세 고을이 가장 심하게 기근이 들어 백성이 많이 죽었으므로 위로하는 일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하여 이하를 선유어사(宣諭御史)로 삼아 가서 선유하게 하였다. 김수홍이 상차하여 아뢰기를, “신의 조부 김상헌이 일찍이 신축년(선조 34년, 1601년)에 어사로 본도에 가서 선유할 때에 선조께서 특별히 명하여 한라산에 제사를 지내게 하고 또 따로 사목을 만들어 보내셨으니, 전례에 따라 하소서.”하였는데, 이 일을 비국에 내렸다.<sup>8)</sup>

또한 속종도 제주도로 가는 사핵어사에게 한라산신제를 행할 것을 명한다. 시험을 개설해주고 백성들의 고통을 파악할 것과 함께 한라산신제를 지내라 하는 것으로 보면 이때의 한라산신제도 제주도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특별한 일 중의 하나로 시행하게 하였던 일로 파악된다.

7) 김상헌, 홍기표 역, 『남사록』하, 제주: 제주문화원, 2009, p.149.

8) 『현종실록』 19권, 현종 12년 9월 16일 갑자 1번째 기사.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이조 판서 이원정에게 개유하여 제주에 따라 사람을 쓰도록 개유하다」

대신과 비변사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오시수가 제주도에 사핵 어사(査覈御史)가 가는 편에 선비들에게 시험을 보이고 또 백성들의 고통을 파악하게 할 것을 청하고, 정유악이 또 무사의 시험도 아울러 보일 것을 청하고, 민암이 한라산에 치제(致祭)할 것을 청하니, 모두 따랐다.<sup>9)</sup>

이렇게 제주에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면 조정은 한라산신제를 거행하도록 하였음을 살필 수 있다. 한라산신에 대한 제사는 제주도민을 위로하는 일 중의 하나로 취급되었음을 알 수 있기도 하다.

#### 4. 한라산신제의 폐지

제주도에서 모반 등의 반역 사건이 일어나면 한라산신제가 폐지되기도 하였다. 이 또한 한라산신제를 다루는 조정의 속내를 짐작할 수 있는 일로 한라산신제의 폐지는 제주도민에 대한 벌을 내리는 조치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한라산신제는 국가의 필요에 의한 상례적 의례이면서도 조정이 제주도민을 위로하거나 벌을 주는 방법으로 사용할 만큼의 의미를 갖는 의례이기도 하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숙종조 제주 목사 이형상은 명산대천이 모두 소사(小祀)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라산만 사전(祀典)에 누락되어 있는 것은 반란 사건 때문인 것 같으니 다시 사전(祀典)에 기록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서를 올렸다.

「대신과 비국의 재신을 인견하여 군정과 한라산 치제 등을 논하다, 대신과 비국의 여러 재신(宰臣)들을 인견(引見)하였다. …(중략)… 제

9) 『숙종실록』 8권, 숙종 5년 9월 23일 을묘 1번째 기사.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주 목사 이형상이 치계(馳啓)하기를, “명산 대천은 모두 소사(小祀)에 기록되어 있으나, 유독 한라산만은 사전(祀典)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오례의(五禮儀)>는 성화(成化) 연간에 편찬되었는데, 그때에 본주(本州)에는 약간의 반역이 있어서 혹 그것 때문에 누락이 되었는지 모를 일입니다. 일찍이 이 일로 장계를 올렸으나, 해조(該曹)에 기각 당했습니다. 다시 품처(稟處)하도록 하소서.” 하였다. …(중략)… 예조에서 대신들에게 문의하니, 영의정 신완은 헌의(獻議)하기를, “이미 그 누락된 것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추가해서 기록해도 무방하겠습니다.” 하고, 판부사 서문중은 헌의하기를, “탐라에 군(郡)을 둔 것은 고려 말기에 비롯되었고, 국조(國朝)에서도 그대로 답습하였는데, 세종 때에 이르러 처음으로 세 읍으로 나누었으니, <오례의>를 편찬할 때에 빠진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세대는 아득히 멀고 증거 삼을 문헌도 없는데, 몇 백 년 뒤에 억지로 의례를 만들어 먼 바다 밖에 향화(香火)를 내리는 것이 과연 합당할지 모르겠습니다.”하고, 영부사 윤지완은 헌의하기를, “국전(國典)에 없는 것을 이제 와서 처음 시행하기란 어려운 일이나, 명산에 제사가 없다는 것은 이미 결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주(本州)의 사체(事體)가 다른 도(道)의 주(州)나 군(郡)과는 다른 바가 있으니, 본주에서 봄·가을에 제사를 지내되 제후(諸侯)가 봉강(封疆) 안의 산천에 제사지내는 것과 같이 함이 무방할 듯합니다.”하였고, 다른 대신들은 헌의하지 않았다. 임금이 판하(判下)하기를, “한라산은 바다 밖의 명산인데 홀로 사전(祀典)에 들지 못했음은 흠결(欠闕)이라 아니할 수 없다. 영상의 의견대로 시행하라.”하였다. 예조에서 치악산과 계룡산의 제례(祭例)와 축문식에 따라 정월·2월·7월에 설행할 것을 청하자, 윤허하였다.<sup>10)</sup>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조 내내 한라산신제는 예조가 관리하여 국가의 미곡을 사용하게 하고 향, 축문 등을 마련해 주어 국가 제사로 정기적으로 행하였다. 특별한 일로 제주에 오는 여사들에게는 별도로 한라산신제

10) 『숙종실록』 38권, 숙종 29년 7월 29일 계유 1번째 기사.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를 거행하여 제주도민을 위로하도록 하고 있기도 하고 반역 등의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는 제주도민에 대한 벌로 한라산신제를 금지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한라산신제는 제주도민을 위한 중요한 국가 의례로 치러지고 있었던 것이다.

근대시대에 들어 한라산신제는 1908년 일제에 의해 폐지되었다.<sup>11)</sup> 한라산신제의 폐지는 제주도의 공동체를 파괴하고자 했던 일제의 의도였던 것으로 연구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일제는 면리(面里)에 존재하고 있었던 전통적인 직제들 즉, 약정 존위 경민장 등의 제도를 없애으로써 향촌사회의 공동체를 파괴해 나갔다. 제주도민이 산천단에서 해마다 거행하던 한라산신제를 혁파해 버린 것도 이러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sup>12)</sup>

이렇게 일제가 폐지한 한라산신제를 일제강점기 동안에 관음사가 대담하게 되살려내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III. ‘제주한라산신제단법당’ 활동과 제주불교

근대 시대 제주불교 관음사는 제주도의 한라산신제의 역사적 사실을 인지하고 한라산신제를 위해 소림사를 제주한라산신제단법당으로 활용하였다. 이는 관음사가 사찰 내 신도들의 신앙의 영역을 뛰어넘어 제주사회 속에서의 역할을 자처하는 행동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1908년 일제가 의도적으로 폐지한 한라산신제를 사찰 내의 활동으로 편입시켜 그 명맥을 잇고 있었던 것이다.

11) 김석익, 「罷山川州社諸公祀祭亭」, 『심재집』, 제주문화사, 1990.

12) 김동진, 「제주인의 3.1운동과 그 영향」, 『탐라문화』16,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원, 1996, p.187.

## 1. 산천단 소림사

소림사는 관음사 관할 사찰로 산천단에 위치해 있었다. 소림사는 소림당 혹은 소림원으로 불리던 곳으로 안봉려관<sup>13)</sup>이 관음사를 창건할 때 운대사를 만나 가사를 전수받은 곳이며 관음사 창건 이후로는 관음사 관할 사찰로 활동하였다.

할 수 없이 그는 한라산 백록담으로 몸을 숨기고 7일이나 절식하다 ... (중략)... 문득 한 노사가 나타나 「저 산천단으로 내려가라」 하므로, 다시 발심하여 산천단으로 내려왔더니, 운대사(雲大師)라는 이승(異僧)이 있어서 「오래 기다렸더니 이제야 본다」 하며 가사 한 벌을 내어 주었다. 다시 밝는 해에 마을에서 구재(鳩財)하여 초암 수 칸을 이루었다가, ... (중략)... 여기다 관음사를 이룩하게 된 것이라 함이 이 절의 창건 삽화이다.(관음사 사적기)<sup>14)</sup>

운대사는 김석윤일 것으로 연구되어 있으며 김석윤은 1945년 관음사 소림원의 주지를 맡기도 한다.<sup>15)</sup> 산천단의 소림사는 안봉려관이 관음사를 창건하는 기록인 「제주도 아미산 봉려암의 기적」,<sup>16)</sup> 「유(遊) 관음사기」,<sup>17)</sup> 「제주도 한라산 법화사 니사 봉려관 비명병서(碑銘并書)」,<sup>18)</sup> 「한라산 순례기」,<sup>19)</sup> 등등에 여러 번 나온다.

13) 안봉려관은 관음사를 창건한 승려로 관음사 외에 범정사, 불담사, 법화사, 월성사, 백련사 등의 창건에도 기여하는 등으로 근대 제주불교 활동의 중심인물이다. 한금순의 연구가 있다. 「안봉려관과 근대 제주불교의 중흥」, 『정토학연구』 제14집, 한국정토학회, 2010.

14) 이은상, 『탐라기행』, 서울: 조선일보사 출판부, 1937, pp.156-157.

15) 한금순, 「승려 김석윤을 통해 보는 근대 제주인의 사상적 섭렵」, 『대각사상』 제19집, 대각사상연구원, 2013.

16) 「제주도 아미산 봉려암의 기적」, <매일신보>, 1918.3.2.~3.3.

17) 김형식 저, 오문복 역, 『혁암산고』, 제주: 북제주문화원, 2004, pp.279-280.

18) 권태연 편역, 『회명문집』, 서울: 도서출판 여래, 1991, pp.177-179.

19) 백환양, 《불교》 제71호, 서울: 조선불교중앙교무원, 1930.

개항기 제주도의 많은 사찰들은 인법당 형태로 불상을 봉안하고 불교 신앙을 이어오고 있었다. 이는 근대 제주불교 사찰 창건 이력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림사도 관음사 창건 이전에 산천단에 있던 인법당 형태의 집 한 채였던 것으로 여러 증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음사는 1933년 소림사 법당을 삼성각으로 활용하여 마치 관음사의 부속 당우처럼 사용한다. 소림사와 관련한 활동을 남기고 있는 제주불교 인물들은 운대사와 안봉려관, 김운하, 이세진, 오이화 등이 있다. 안봉려관은 이 산천단 소림사에서 입적하기도 하였고 오이화 주지는 제주4.3사건으로 관음사가 불타고 이 소림사에 머무르기도 하였다. 소림사도 제주 4.3사건으로 소각 당한다.

소림사가 위치한 곳인 산천단의 의미를 살펴보자. 이은상은 산천단에 위치하고 있던 소림당을 방문하였고 그의 글을 통해 산천단의 역사적 역할을 설명해 놓고 있기도 하다.

이은상의 설명에 의하면 한라산신을 봉안한 산천단은 본래 산위에 있던 것으로 고려 고종 40년 기록에 의하면 한라산신을 ‘제민(濟民)’이라 봉하고 산상에서 춘추로 제사를 지내었다. 그런데 산위에서 제를 지내면서 동사 등의 피해가 있어 조선 성종조에 목사 이약동이 여기로 옮겨 봉안하고 산천단이라 이름한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본시 한라산신을 봉안한 산천단은 저 산상(山上)에 있던 것이다. 고려 고종 사십년(서기 1253)의 기록을 거(據)하면 한라산신을 「제민(濟民)」이라 봉(奉)하고 춘추로 치제(致祭)하던 것이었으나 산상행제(山上行祭)에 왕왕 동사(凍死)의 불행을 보게 되므로 이조 성종조에 목사 이약동이 이곳으로 이안하고 산천단이라 이름한 것이다.<sup>20)</sup>

조선시대 산천단에 제사 지냄은 조선왕조실록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20) 이은상, 앞의 책, p.155.

「<홍무 예제>에 의거하여 산천단에 제사 지내도록 하자는 예조의 건의를 받아들이다」

예조에서 산천단(山川壇)의 제사(祭祀)를 <홍무예제>에 의하기를 청하였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삼가 월령(月令)을 상고하건대, '5월달에 유사(有司)에 명하여 백성들을 위해 산천(山川)·백원(百源)에 제사한다.' 하였고, 그 주에 이르기를, '장차 비[雨]를 빌려 함이다.' 하였습니

다.21) 조선시대 산천단은 기우제를 지내기 위한 곳이며 예조의 관할 업무였다. 소림사는 이러한 산천단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한라산신제를 지내는 법당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살피게 될 것이다.

## 2. 근대 제주불교의 한라산신제 활동

1933년 관음사의 안봉려관은 한라산신제를 위한 제단을 마련하였다. 한라산 산신제단 중창 기록이 있다.

제주한라산등단계서문(濟州漢拏山登壇契序文)

아, 고려 초기에 옥왕자(玉龍子) 도선국사(道詵國師)의 감여신결(堪輿神訣)에 의하여 명산승지에 제단을 세움에 여기에도 제단을 세웠습니다. 이곳은 안개와 연기와 노을이 항상 하며 가로질러 붉은 산이 터있고 사나운 바람과 쌓인 눈에 이름난 꽃이 만발한 듯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성현이 허공계에 나열한 듯 하고 어떤 때는 오색의 빛깔이 서려 있기에 물외의 객과 비상(非常)의 사람들이 올라와 놀고 간다고 전하여 옵니다.

한라산이 이처럼 이곳의 명산으로서 전도민이 이 제단에서 복을 받고 있습니다.

21)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5월 8일 무진 3번째 기사.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이 제단이 창설된 이래로 조선의 현종 시대까지는 나라에서 제물을 장만하여 제사를 지냈으나 근자에 이르러 칙령쿨이 엉키고 풀들이 길을 막았기에 영기들은 비경(悲境)에 빠짐에 섬 주민 또한 자연 곤궁한 지라 이에 봉려관 비구니 스님은 원래 탐라국의 태생으로 육십 여덟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이 제단을 중창하고자 나에게 서언을 부탁한 바 나는 본래 문묵에는 어두우나 스님의 일이 심히 기위(奇偉)하기에 몇 줄로서 서문에 가름합니다.

<계유년<sup>22)</sup> 늦은 봄에 씀><sup>23)</sup>

<제주한라산등단계서문>에 의하면 제주불교가 산천단에 위치한 한라산신제단의 역사를 인식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제주도민에게 한라산신제의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도 파악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한라산신제단은 조선 현종대까지 나라에서 제사를 지내던 제단이었는데, 근대시대에 들어서서 제단이 방치되고 있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안봉려관은 제주도 주민들이 근래에 삶이 곤궁한 것은 바로 한라산신제가 방치된 것이 그 원인이라 여겨 한라산신제단을 중창한다고 기록해 놓고 있다.

눈여겨 볼만한 점은 관음사의 안봉려관이 관음사 경내의 하나의 당우에 제단을 설치하고 있지 않고, 산천단에 있는 소림사를 굳이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곧 산천단의 특성을 활용하고자 하였던 것이라 볼 수 있는 점이다. 이에 대해 이은상의 기록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1937년 관음사 소림당에는 “제주한라산신제단법당”이라는 문판이 달려 있었다. 이은상의 기록 『탐라기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산천단(山川壇) 앞에 이르렀다. 「제주한라산신제단법당(濟州漢拏山神祭壇法堂)」이라는 문판(門板) 밑으로 들어서니 당내(堂內)에는...<sup>24)</sup>

22) 1933년.

23) 권태연 편역, 앞의 책, p.50. <제주한라산등단계서문>을 쓴 사람은 이회명이다. 이회명은 관음사의 안봉려관을 도와 제주불교협회를 만들어내는 등의 활동을 한 제주불교의 주요인물이다.(한금순, 『한국 근대 제주불교사』, 서울: 경인문화사, 2013, pp.72-74. 참조).

소림당에는 치성광여래와 독수선정나반존자가 함께 모셔져 있었다.

「제주한라산신제단법당(濟州漢拏山神祭壇法堂)」이라는 문판(門板) 밑으로 들어서니 당내(堂內)에는 치성광여래(熾盛光如來)와 독수선정나반존자(獨修禪定那般尊者)의 위패를 모신 소림당(小林堂)이라는 일당우(一堂宇)가 있다.<sup>25)</sup>

소림당은 치성광여래와 독수선정나반존자를 모신 법당이면서 한라산신제단으로 활용하고 있던 당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소림당이 곧 불교의 전각 중 삼성각에 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치성광여래는 칠성 불화의 주존불이다. 하늘의 중심 북극성을 상징하며 해와 달을 상징하는 일광보살과 월광보살을 협시보살로 둔다. 독수선정나반존자는 독성존자라고도 한다.<sup>26)</sup> 나반존자 즉 독성 신앙은 우리나라 불교에서만 신앙하는 대상이다.<sup>27)</sup> 최남선은 삼성각이나 독성각에 모시는 나반존자는 불교의 것이 아니라 민족 고유신앙의 것이라고 하였다.

최남선(崔南善)은 “절의 삼성각(三聖閣)이나 독성각(獨聖閣)에 모신 나반존자는 불교의 것이 아니라 민족고유신앙의 것이다. 옛적에 단군을 국조로 모셨으며, 단군이 뒤에 산으로 들어가서 산신이 되었다고도 하고 신선이 되었다고도 하여 단군을 산신으로 모시거나 선황(仙皇)으로 받들었다. 그래서 명산에 신당을 세우고 산신 또는 선황을 신봉하여왔는데, 불교가 들어오면서 그 절의 불전 위 조용한 곳에 전각을

24) 이은상, 앞의 책, p.154.

25) 이은상, 위의 책, p.154.

26) 오출세, 「불교와 민속신앙」, 『불교학연구』 5호, 서울: 불교학연구회, 2002.

27) “나반존자라는 명칭은 석가모니의 10대 제자나 5백 나한의 이름 속에 보이지 않고, 불경 속에서도 그 명칭이나 독성이 나반존자라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으며, 중국의 불교에서도 나반존자에 대한 신앙은 생겨나지 않았다. 나반존자에 대한 신앙은 오직 우리나라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신앙형태이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세우고 산신과 선황을 같이 모셨으며, 또 중국에서 들어온 칠성도 함께 모셨다.”라고 하였다. …(중략)… 나반존자는 사찰의 독성각 또는 삼성각에 봉안되며, 독성각에는 나반존자상이나 탕화를 단독으로 모시고, 삼성각에는 칠성·산신 등과 함께 모신다.<sup>28)</sup>

독수선정나반존자는 칠성, 산신과 함께 삼성각에 모셔진다.<sup>29)</sup> 그러므로 칠성인 치성광여래와 독수선정나반존자와 함께 한라산신을 소림당에 모시고 있어 소림당은 관음사의 삼성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은상은 소림당의 모습이 우리의 고교(古敎)와 불교의 혼효(混淆) 즉 뒤섞인 양상이라고 하고 있다. 소림당이 한라산신제단이면서 치성광여래와 독수선정나반존자를 봉안하고 있는 법당이라는 모습에서 불교와 우리 고유의 신앙이 뒤섞인 양상이라 본 것이다.

이는 예(例)에 의하여 우리 고교(古敎)와 불교의 혼효(混淆) 된 형태어 이와 이 당우(堂宇)가 산천당(山川堂)임은 다시 말할 것이 없고 속(俗)에 「삼천당(三天堂)」이라고도 쓴다함을 들으니 여기 그 본질본색의 요연(瞭然)함을 넉넉히 짐작하겠다.<sup>30)</sup>

삼성각이 우리 고유 신앙과 불교의 혼합된 형태라는 인식은 비단 제주도만의 특징이 아니라 한국불교의 특징이기도 하다. 삼성각은 산신(山神)·칠성(七星)·독성(獨聖)을 함께 봉안하고 있는 사찰 당우 중 하나로, 삼성은 각각 재물과 수명과 복을 관장한다고 하기도 한다.

또한 이은상은 산천단 소림당은 곧 산천당이며 삼천당이라고도 한다고 하니 더욱 더 그 본질과 본색이 우리 고유 종교와 불교가 섞여있는 것임을 명료하게 짐작할 수 있노라 하기도 하였다.

2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29) 정병삼, 『그림으로 보는 불교 이야기』, 서울: 풀빛, 2016, 참조.

30) 이은상, 앞의 책, pp.154-155.

소림사는 관음사 경내에 위치한 당우가 아니라 관음사에서 떨어진 지경에 위치한 독립사찰이었다. 삼성각의 역할을 하고 있던 소림사에 현판을 “제주한라산신제단법당”이라고 달아놓은 의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이것은 안봉려관이 제주도민들에게 제주불교의 역할을 알리고 싶었던 의도적인 행위였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제주불교는 소림사가 독립 사찰이었음에도 한라산신제를 위한 법당을 알리고자 하였다. 소림사가 산천단에 있었기 때문에 한라산신제가 제주도민에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파악하고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제주사회에 참여하는 활동을 의도하였던 것으로 생각한다. 관음사 경내의 전각에 삼성각을 둘 수도 있는데 굳이 소림사에 그 역할을 주며 현판을 단 이유는 의도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즉 삼성각의 불교 내의 활동을 뛰어넘어 한라산신제단으로서의 소림사의 역할을 제주사회에 널리 알리려는 의도였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라산신제단법당이라는 현판을 달아놓은 것은 일제가 폐지한 한라산신제를 대하는 관음사의 대범함이며 의도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한라산신제를 사찰 내의 불교활동 속으로 편입시켜 명맥을 이음으로써 일제의 관리로부터 자유롭게 한라산신제를 행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였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는 근대시대 관음사가 산천단과 한라산신제의 제주도에서의 역사적 의미를 간파하고 제주도민의 곤궁함을 위로하기 위한 역할을 자처하고 있었던 과감한 활동 모습이라 할 수 있다.

### 3. 근대 제주불교의 제주사회 활동

필자는 관음사 경내가 아닌 산천단에 ‘제주한라산신제단법당’을 별도로 마련한 이유를 근대 제주불교의 제주사회 참여활동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았다. 소림사는 관음사와 떨어진 지경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미

독립 사찰로서 활동하고 있었음에도 ‘제주한라산신제단법당’으로 간판을 달아놓은 이유는 제주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고자 의도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 의도는 산천단이 제주사회에서 갖는 의미를 파악하고 있는 데에서 비롯된 것임을 앞서 살폈다. 이는 근대 제주불교가 종교활동이 아닌 분야에서도 제주사회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모습에서도 미루어 짐작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근대 시기 제주불교가 제주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근대시대 제주불교는 종교 활동 영역을 뛰어 넘은 제주사회 현안 참여 활동 모습이 종종 포착된다. 대표적으로는 1918년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의 주도를 들 수 있다. 국권을 회복하겠다는 목적을 내걸고 법정사 승려들이 주도하여 지역주민 700여명의 참여를 이끌었다. 1914년경부터의 법정사 활동은 이 법정사 항일운동을 조직해내기 위해 신도들을 교육시키는 등의 활동이었다. 신앙 활동의 영역에서 벗어나 사회적 현안을 주도해나간 제주불교의 대표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다.<sup>31)</sup>

1924년 조직된 제주불교협회는 제주청년회, 제주부인회 등 제주도의 사회단체 14개 등과 함께 제주기근구제회를 조직하는데 함께 참여한다.

제주에도 기근구제회 십여 단체 발기로 조직

당지 각 단체에서는 기근 구제 방침에 대하여 백방으로 고려하여 오던 바 구정 초를 기하여 거 1월 11일 하오 3시에 각 단체 대표가 제주 청년회관에 회집하여 제주기근구제회를 조직하고 원래 제주에서는 금진 등은 모집키 난(難)함으로 회원 진부가 총출동하여 가마니 전대 등을 둘러메고 촌촌가가로 돌아다니며 맥숙 곡류의 의연을 구하기로 결의하고 익 2월 1일 하오 1시에 동회 선전부에서는 기(旗)와 악대를 선두로 하여 시내 각 구역을 순회하면서 비분강개한 노방 연설을 하였는데 일반의 의연이 답지하였다고(제주)

31) 제주법정사항일운동에 대한 자세한 논문이 있다. 한금순, 「1918년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의 성격」, 제주대학교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6.

◇ 집행위원

김태민 양흥기 김택수 고마리아여사 봉려관안사(蓬蘆觀安史) 외 십수인

◇ 발기단체

제주청년회 제주부인회 제주불교협회 제주기독교청년회 중앙탐라회 갑자제여회 용진회 소년돈목회 소년신명회 소년광명당 소년보인회 조선일보제주지국 시대일보제주지국 본사제주지국<sup>32)</sup>

뿐만 아니라 승려 안봉려관은 제주기근구제회 집행위원으로 활동하는 모습도 보인다. 또한 집행위원인 김태민은 제주불교협회 부회장, 양흥기는 제주불교협회 총무로 활동하기도 한 인물이다.<sup>33)</sup> 370여원을 모금하여 조선기근구제회와 전남도청 등지로 보내었고<sup>34)</sup> 나주 등지로도 의연금을 보내는 등으로<sup>35)</sup> 전국적인 활동이기도 하였다. 이 활동은 종교 활동의 범주에서만 아니라 제주사회 활동의 다양한 범주에 제주불교가 동참하는 활동 모습이다.

1927년 9월에는 제주도에 대폭풍우로 인한 참사가 있었다. 사망자가 23명이고 부상자와 가택, 가축, 농작물의 손해가 막심한 수해였다.<sup>36)</sup> 제주청년회 제주여자청년회 등 제주도의 여러 단체가 연합하여 구제를 위한 활동과 구제금품 모집 활동을 하였다. 이 수해로 제주불교협회는 관민유지 공동으로 제주도사와 함께 추도회를 개최하였다. 이는 제주불교가 종교의 영역을 활용하여 제주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도사(島司)가 대추도회

32) 「제주에도 기근구제회 십여 단체 발기로 조직」, <동아일보>, 1925. 2. 9.

33) 한금순, 『한국 근대 제주불교사』, 서울: 경인문화사, 2013, p.155, p.183.

34) 「구기금=처치를 간섭」, <동아일보>, 1925. 4. 9.

35) 「대인 사승 오합 제주서 온 것과 합하여 나주에서 구기」, <동아일보>, 1925. 6. 28.

36) 「수해구제도 간섭 제주경찰 태도」, <동아일보>, 1927. 9. 24.

제주 수재에 죽은 이 위해 불교협회도 찬동해

삼백년 이래 처음 되는 큰 수해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게 된 제주도의 전전(前田) 도사(島司)는 19일 오후 1시경에 관민유지와 불교협회와의 공동으로 용담리 바닷가에서 성대한 추도회를 개최하였었다.<sup>37)</sup>

제주불교는 1928년에는 재만동포옹호동맹 활동에 참여한다. 만주의 동포가 중국 관헌에게 박해를 당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제주청년회, 제주기자단, 제주기독교회, 산지청년회, 제주부인회, 제주여자청년회, 제주학우회, 제주공보동창회, 제주음사 등의 제주도 사회단체의 대표 20인이 모여 재만동포옹호동맹 창립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들은 조선총독부에 진정하고 중국에도 항의할 것 등을 결의하였다. 이 활동에 관음사의 주지인 안도월도 선전부에 소속되어 참여하고 있다. 이 또한 종교활동과는 무관한 제주사회 활동에 참여한 제주불교의 모습이다.

제주각단 연합 옹호동맹 조직

재만(在滿) 동포가 중국관헌에게 가진 박해를 당한다는 소식을 접한 제주청년연합회 주최로 거 24일 하오 2시에 성내 이도리 향사(鄉舍)에서 제주청년회 제주기자단 제주기독교회 산지청년회 제주부인회 제주여자청년회 제주학우회 제주공보동창회 제주음사 등의 대표 20인이 모여 재만동포옹호동맹발기회를 개최하고 해(該)동맹창립대회 준비위원 11인을 선출하여 준비에 노력하던 바 거월 26일 하오 3시에 성내 제주유치원에서 재만동포옹호동맹 창립대회를 개최하고 의장 최남주 씨 서기 김적내씨를 선거한 후 한상호씨의 진상보고가 유한 바 장내가 극도로 긴장한 가운데 강령 급 규약을 통과하고 토의로 옮겨 좌기와 여히 결의하였으며 실행 위원 19인을 선거하고 동맹의 경비에 대해하야는 즉석에서 모집된 의사가 5원 10전이였으므로 이로써 충당하기로 하고 사무소를 제주불교포교당으로 정한 후 자유 연단을 개하야

37) 「도사가 대추도회」, <매일신보>, 1927.9.21.

소감을 말하기로 했던 바 임석경관이 증지를 명하였으므로 할 수 없  
이 하오 5시경에 폐회하였다더라(제주)

결의

一. 근본 방침

적극적 행동은 절대로 피하고 온건한 수단으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것

一. 실행방침

1. 조선총독부에 진정할 것
2. 재경총동맹과 제휴하여 중국 관계당국인 북경정부 경성총영사관  
봉천 급 길립성에 항의할 것
3. 재락(在洛)중국인의 노력을 촉진시킬 것
4. 재만 조선인 구축 대책강구회에 격려문을 발송할 것
5. 물질적으로 동정할 것
6. 옹호강연회를 개최할 것

서무부 김성옥 김적내, 조사부 한상호 강기찬, 선전부 고정종 김두봉  
고수선 안도월<sup>38)</sup>

제주불교포교당을 재만동포옹호동맹 사무소로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제주불교포교당을 제주사회에 활동 장소로 제공하여 각종 활동을  
돕는 사례도 더 찾아 볼 수 있다. 1925년 제주여자청년회 창립총회가 제  
주불교포교당에 개최되었다. 제주여자청년회는 일제강점기 제주 여성의  
교육 및 여성운동을 주도하던 단체이다.

제주여청창립

제주에서 여자청년회를 창립하였다함은 기보한 바와 같거니와 거 십  
이월 이십육일 오후 칠시에 성내불교포교당에서 제주여자청년회 창립  
총회를 개최하였다(제주)<sup>39)</sup>

1928년 제주청년회 정기총회가 제주불교포교당에서 개최되기도 하였다.

38) 「제주각단연합 옹호동맹 조직」, <동아일보>, 1928.1.7.

39) 「제주여청창립」, <동아일보>, 1926.1.9.

제주청년회는 일제강점기 제주 사회의 대중 계몽운동을 주도하던 단체이다. 일제 경찰은 이들의 활동을 저항으로 인식하여 감시하고 집회를 금지하기도 하였다. 제주도 전역 마을에 지회가 조직되어 활동하였고 다양한 제주사회의 현안에 대처하는 활동을 주도하던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단체이다. 앞서 살핀 것처럼 제주청년회는 제주불교협회와 재만동포옹호동맹, 제주기근구제회 활동을 함께 하였던 단체이며 장소를 제공한다는 것은 활동 취지에 공감한다는 뜻도 포함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되어 관련 기사 전문을 싣는다.

#### 호남지방

◎ 제주청년회 정충= 제주청년회 제1회 정기총회는 예정대로 거 22일 상오 11시부터 성내 불교포교당에서 준비위원 고명우군의 사회로 개최하고 임시집행부로는 의장 고정중, 서기 부태환 2군이 피선되어 하오 1시경에 폐회하고는 즉시 회원 일동은 붉은 마-크를 부치고 제주청년회 원유회기(園遊會旗)를 선두로 하여 악대를 울리면서 전 시내의 시위행렬을 하고 원유회기 제주공립농업학교 후원에서 대성황으로 원유회를 종료하고 하오 6시경에 산회하얏으며 토의사항과 개선된 임원은 좌와 여하다더라(제주)

1. 단일 청년동맹실시의 건
  2. 연령제한의 건
  3. 신간지회 축진의 건
  4. 근우회 지지의 건
  5. 영업세 조정의 건
  6. 관혼상제 폐풍교정의 건
  7. 시민운동회 개최의 건
- 임원=홍순녕, 고명우 외 13인<sup>40)</sup>

제주청년회 활동 모습을 위 기사에서 살펴보면 신간회나 근우회의 노

40) 「호남지방」, <동아일보>, 1928.4.30.

선을 지지하고 있는 단체이며 또한 시민운동을 개최하고자 하는 모습을 살필 수 있다. 총회가 끝나고 나서는 시내로 악대를 올리면서 시위 행진하였다. 당시 전국적으로 행해지는 운동회는 체육행사만이 아니었다. 운동회에는 악대를 앞세워 시위행진을 하였는데 이는 민족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긴 것이었다.<sup>41)</sup> 제주청년회도 시민대운동을 여러 번 개최한 단체이다. 제주불교는 이러한 사회단체들과 함께 종교 활동이 아닌 제주 사회의 여러 활동에도 참여하였음을 볼 수 있다. 제주불교가 함께 활동한 사회단체들은 일제 당국으로부터 저항 활동으로 인식되어 활동의 제약을 받거나 하던 단체들로 제주불교의 활동 범위와 그 의도를 짐작할 수 있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제주불교협회는 제주도에 중등 교육기관이 없으므로 제주도 청년들의 앞날을 위해 중등과정의 강습원을 설치하여 개교하기도 하였다. 당대는 교육을 통한 대중 계몽운동을 위해 사회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학교설립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제주불교도 이러한 제주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활동을 하였던 모습이다.<sup>42)</sup>

이상 살펴본 내용들로 미루어보면 제주불교는 종교 활동 이외의 다양한 제주사회 현안에 참여하여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제주불교가 소림사에 ‘제주한라산신제단법당’을 설치하여 활동하였던 것도 이러한 제주불교의 제주 사회참여 활동 정신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였다.

## V. 맺음말

근대 제주불교는 종교 활동 범위를 넘어 제주사회의 다양한 현안에 능

41)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1, 서울: 1967, p.367.

42) 「제주불교협회 중등강습 계획」, <매일신보>, 1935.1.28.



동적 참여하여 활동하였다. 제주의 역사를 인지하여 소림사를 제주한라산신제단법당으로 활용하여 제주민을 위로하려는 사찰로서의 기능을 실천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 국가 의례였던 한라산신제를 지내던 산천단에 위치한 소림사를 삼성각의 역할로 활용하여 치성광여래와 나반존자와 함께 한라산신을 봉안하였다. 나라를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국가의례인 한라산신제가 일제에 의해 철폐된 상황에서 제주불교는 제주민을 위로하고자 하는 의도로 사찰 내의 활동으로 한라산신제단을 부활시켜 소림사를 한라산신제단법당으로 활용하였다. 제주불교의 이러한 제주사회 맞춤형 참여활동은 1918년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으로 제주도민과 함께 보여주었던 사회참여 활동 이력 등과도 맞닿아 있다 할 것이다. 제주사회에서 한라산신제를 부활시키지 못하는 동안 관음사는 한라산신제단법당까지 마련하는 과감성을 보여주며 사찰 내의 활동으로 한라산신제를 행함으로써 일제의 탄압에 대해 우회적 방편을 활용하였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제주불교협회는 전국의 기근 구제를 위해 제주도 사회단체들이 함께 활동하던 제주기근구제회 활동에 같이 참여하고 관음사의 안봉려관은 집행위원으로 활동한다. 또한 만주의 동포가 중국으로부터 학대를 받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도의 사회단체들이 만든 재만동포옹호동맹 활동에는 관음사 주지 안도월이 선전부 구성원으로 활동하기도 한다. 제주불교협회 포교당은 제주사람들의 제주사회 참여활동 장소로 제공되기도 하였다. 재만동포옹호동맹의 사무소로 제공되거나 제주청년회와 제주여자청년회의 회의 장소로 제공하는 모습을 보인다. 제주청년회와 제주여자청년회는 제주의 여러 사회현안에 대응하던 당대의 대표적인 사회단체이다. 이러한 활동은 제주불교가 종교 활동의 범위를 넘어 제주사회의 여러 현안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자 하였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본고를 통해 근대시대 제주불교가 제주사회와 제주민들의 요구에 맞춘 사회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교적부』, 한국불교태고종 제주종무원 소장, 1947.
- 권태연 편역, 『회명문집』, 서울: 도서출판 여래, 1991.
- 김형식 저, 오문복 역, 『혁암산고』, 제주: 북제주문화원, 2004.
- 김상헌, 홍기표 역, 『남사록』상, 제주: 제주문화원, 2008.
- 김상헌, 홍기표 역, 『남사록』하, 제주: 제주문화원, 2009.
- 이은상, 『탐라기행』, 서울: 조선일보사 출판부, 1937.
- 제주불교사연구회, 『근대제주불교사자료집』, 제주, 2002.
- 사찰문화연구원, 『제주의 사찰과 불교문화』 전통사찰총서 21, 서울, 2006.
- 정규진, 『불교와 탕화』, 서울: 중도, 2008.
- 정병삼, 『그림으로 보는 불교 이야기』, 서울: 풀빛, 2016.
- 중앙일보사, 『한국의 미』 13, 서울, 1983.
- 한금순, 『한국 근대 제주불교사』, 서울: 경인문화사, 2013.
- 박경준, 「대승불교사상과 사회참여 일고」, 『불교학연구』 24, 불교학연구회, 2009.
- 오출세, 「불교와 민속신앙」, 『불교학연구』 5호, 불교학연구회, 2002.
- 유승무, 「참여불교의 관점에서 바라본 갈등시대 한국불교의 사회참여」, 『불교학연구』 24권, 불교학연구회, 2009.
- 이도흙, 「해방 이후 한국 사회문제와 불교의 대응 및 지향점」, 『불교학연구』 37권, 불교학연구회, 2013.
- 한금순, 「1918년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의 성격」,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_\_\_\_\_, 「1918년 제주도 법정사항일운동 관련 『형사사건부』 분석」, 『대각사상』 제12집, 대각사상연구원, 2009.
- \_\_\_\_\_, 『근대 제주불교사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0.
- \_\_\_\_\_, 「안봉려관과 근대 제주불교의 중흥」, 『정도학연구』 제14집, 한국정도학회, 2010.
- \_\_\_\_\_, 「승려 김석운을 통해 보는 근대 제주인의 사상적 섭렵」, 『대각사상』 제19집, 대각사상연구원, 2013.
- \_\_\_\_\_, 「안도월과 근대 제주불교」, 『대각사상』 제26집, 대각사상연구원, 2016

<동아일보> (1925. 2. 9.). (1925. 4. 9.). (1925. 6. 28.). (1926. 1. 9.). (1927. 5. 18.). (1927. 9. 24.). (1928. 1. 7.). (1928. 4. 30.). (1935. 6. 28.).

<매일신보> (1918. 3. 2~3. 3.). (1920. 5. 31.). (1923. 10. 12.). (1924. 5. 16.). (1925. 4. 19.). (1925. 10. 25.). (1926. 10. 14.). (1927. 6. 30.). (1927. 9. 21.). (1930. 12. 28.). (1935. 1. 28.). (1935. 5. 17.).

《불교》 제71호, 조선불교중앙교무원(1930)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태종 11년, 태종실록 21권, 태종실록 35권, 세종실록 46권, 현종실록 19권, 숙종실록 8권, 숙종실록 38권, 정조실록 11권, 정조실록 38권, 순조실록 3권)

조선총독부관보활용시스템(<http://gb.nl.g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 Abstract

### ‘The Sanctum of Hallasan Mountain God in Jeju’ and Jeju Buddhism

Han, Geum-soon

(Ph. D., History department Lecturer of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Gwaneumsa Temple in the modern periods held the relief activities for the residents in Jeju, with hanging the signboard of ‘The Sanctum of Hallasan Mountain God in Jeju’ at Sorimsa, one of Gwaneumsa’s branch. It was conducted as the religious ritual with showing the activist aspect of Jeju Buddhism. This article deals with the correlation between social activism of Jeju Buddhism and the active role of Jeju Buddhism in the ritual for the god of Hallasan Mountain.

In 1908, after the abolition by Japanese imperialism in Jeju Island, the consciousness for the god of Mt. Halla was restored with the intention of relief activities for the residents of Jeju Island. Gwaneumsa enshrined the god of Hallasan Mountain to Sorimsa as its Samseonggak since 1933.

Thereafter, Gwaneumsa purposely emphasized the function of Samseonggak that performed the ritual task for the god of Hallasan Mountain, with hanging the signboard of ‘The Sanctum of Hallasan Mountain God in Jeju’, at Sorimsa. It implies that Jeju Buddhism in the modern periods had the activist attitude in regional issues of Jeju beyond its religious practices,

Social activism of Jeju Buddhism reached the peak in 1918 when anti-Japanese movement of Beopjeongsa took place. Association of Jeju Buddhism and Buddhist monks of Gwaneumsa cooperated with other social organizations in Jeju for famine relief in Jeju, and political assistance of Korean compatriots in Manchuria. In consideration of social

activism of Jeju Buddhism, hanging the signboard of ‘The Sanctum of Hallasan Mountain God in Jeju’ at Sorimsa implies the comprehensive and cooperative stance of Jeju Buddhism about regional issues in Jeju.

Key words

Jeju Buddhism, Gwaneumsa, the ritual for the God of Hallasan Mountain, Temple Sorimsa, Sancheondan, social activism of Jeju Buddhism, The Sanctum of Hallasan Mountain God in Jeju, Lee Eunsang, Ahn bongryogwan, samseonggak